

<하기 글은 2018년 5월 14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부담 없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5월 정기회의**

미세먼지 없이 맑고 화창했던 지난 11일,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5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날씨 덕분에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던 5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날씨만큼이나 밝은 얼굴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만큼, 그동안 궁금했던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의장 인사말과 함께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소통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이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의장인사말 이후, 민원내용을 공유드리지만 이번 정기회의의 기간(4~5월)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2기 위원 활동 중 처음으로 민원없는 회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봉사단 부단장인 흥영돈위원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발적 봉사활동 추세에 따라 주말 봉사활동 요구가 증가하여 수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와 '주말봉사활동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사회복지사의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사회복지사 비타민캠프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비타민캠프'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에는 2배 늘린 총 6차수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용인과 화성, 평택, 오산의 사회복지사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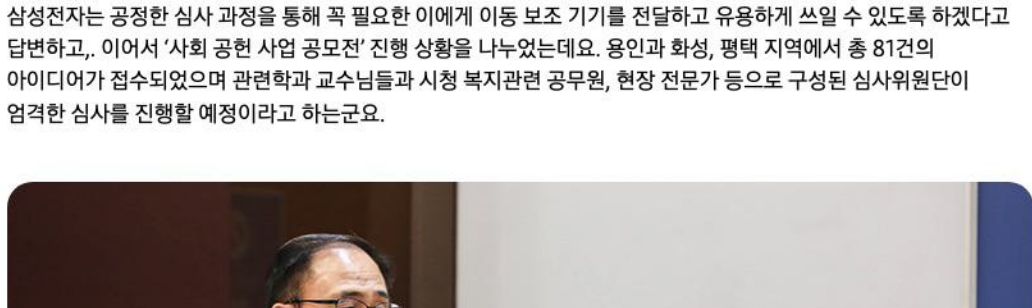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다 함께 한 걸음' 사업 대상자 모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달리기 기부금으로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에게 이동 보조 기기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대상자 모집이 진행된다는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오현영 위원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기금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너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예전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더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광환 대표위원은 기부금이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수혜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꼭 필요한 이에게 이동 보조 기기를 전달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어서 '사회 공헌 사업 공모전' 진행 상황을 나누었는데요. 용인과 화성, 평택 지역에서 총 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관련학과 교수님들과 시청 복지관련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흥영돈 부단장은 "기업이 신뢰를 쌓아 올리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 나눔에 힘쓰는 삼성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로운 토론으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5월 정기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씨에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5월! 지역사회와 삼성전자 간의 상생과 부담 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소통위원과 삼성전자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